

特 輯

I . 이란의 肥料市場 動向

(Source : Kotra 提供)

1. 개 요

한국에서 이란으로 수출 가능한 품목은 주로 복비이며 단비의 경우 현지에서 상당량이 국내 생산되고 있고 또한 인근국인 파키스탄 및 터키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비의 경우 경쟁력이 없어 수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파키스탄이나 터키의 경우 단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이유는 생산 공정과정에서 소요되는 연료로서 천연가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코스트가 기타 제국에 비해 극히 저렴하게 들기 때문이다.

아국의 대이란 주종 수출품목은 소위 복비중 DAP 비료로서 이란은 1979년 2월 혁명 후 농업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식량 자급 자족을 위해 비료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상술한 바와같이 복합비료도 국

내에서 일부 생산은 가능하나 국내 수요에는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이란의 연간 복비 수요량은 약 80 만톤으로 시장 특성은 복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구매 기관 또한 일원화 되어있어 국제 입찰을 통한 일괄 구매 및 분배를 하고 있으며 철저하게 가격 시장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다.

2. 수급 동향

이란은 혁명후 경제 정책상 최대의 역점을 대외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급자족 자체 수립에 두고 있으며 자급자족 체제수립에 있어서도 인구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농업개발에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식량의 자급자족을 통해서 자급자족 체제의 기반을 조성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때문에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비료의 수입은 불가피한 실정이며 수입 정책면에서도 다른 어떤 품목에 비해서도 우선권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이란은 비료의 국내 자급자족을 위해 쉬라즈에 대규모 비료 공장을 건설중에 있으며 1983년말 완공 예정으로 있어 국내 공급량도 한층 더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비료 생산에 대해 정

부가 특별히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지만 농업 개발을 위해 중요한 품목인 만큼 자급자족 체제의 수립이라는 면에서 포괄적으로 생산증가를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3. 수출입업체 동향

전술한 바와같이 국내 생산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수출은 전무한 실정이며 수입은 전량 정부 비료 전달 구매기관인 FDPPC에서 일괄 구매와 분배를 하고 있어서 민간 사이트의 수입 활동은 절대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 수입은 점증 추세에 있는데 이는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식량자급자족 정책의 최우선분야인 농업 개발을 위해 동 품목의 수입 증가는 당분간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편 아국의 대이란 비료 수출은 이란의 혁명전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였으며 이는 그당시 미국산 및 인근 국가의 동제품 가격과의 경쟁에서 도저히 수출이 불가능 했기 때문이다.

아국이 대이란 비료 수출을 본격화 할 수 있었던 것은 혁명후 이란과 미국과의 외교 관계가 완전 단절되어 그로 인한 공급의 공백을 아국이 효과적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아국은 1979 년경부터 이란에 대해 연간 15 만톤 내지 20 만톤

의 복합 비료를 수출하고 있으며 혁명후 지금까지는 대이란 비료 수출이 원활하였으나 지금부터는 이란이 제 3국 특히 유럽제국을 통하여 미국산을 수입함에 따라 대이란 비료 수출이 다시 감소 추세에 있으며 가격 경쟁력에서 점차 불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4. 가격 동향

비료의 국제 경기 하락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비료 수입국의 수입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비료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으며 특히 아국의 대이란 주종 수출 품목인 DAP의 경우 80년도 CNF 이란 가격이 톤당 US\$ 390 선이었으나 최근에는 \$ 250 정도로 까지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주 경쟁국인 미국산과 비교하여 톤당 US\$ 10 ~ 20불정도 가격 경쟁력면에서 불리하여 지금까지는 주로 저렴한 선임을 통하여 가격 경쟁력상의 약화 요인을 보전하여 왔으나 최근 이란측이 FOB 베이스로 자국 산 선박을 이용하도록 제도적으로 요구함으로써 한층 더 가격 경쟁력의 약화를 유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5. 경쟁 상황

단비의 경우 아국산은 가격 경쟁력 약화 요인 때문에 전연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북비의 경우 미국산을 공급조달하는 유럽제국 즉, UNIFERT (벨지움), DRAYCOT (스위스), GULF FERTILIZER (영국) 등의 국제적인 비료 딜러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비료의 경우는 단일 품목으로 구매 기관이 일원화 되어 있고 공급국도 제한되어 있어 소위 마케팅 활동에 의한 시장 개척이나 심화에 의해 시장 확산이나 거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생산 코스트에 의해서 국제입찰을 통한 순수한 가격 경쟁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 만큼 적어도 이란의 비료 시장에 관한한 전통적인 의미의 마케팅 활동 자체는 별의미가 없는 실정이다.

한편 경쟁 요인별로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면 품질면에서는 전연 문제가 없으며 주경쟁국인 미국산과 비교해서도 전연 손색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거래조건을 보면 모든 거래 대상국이 동일한 조건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란은 FOB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L/C 베이스로 철강제품과 함께 미화를 결제통화로 하고 있으나 아국의 경우 저렴한 아국선을 이용할 수 없어 전술한 바와같이 극히 불리한 실정이다.

상품 인도조건을 보면 통상 신용장 개설후 1~2개월을 요구하고 있

으며 이점에서는 아국측에 별문제가 없으나 다만 최근 이란의 항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 화물 적체 현상이 심하며 하역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6. 수출입 관리제도

비료 수입 전담 국영 구매기관인 FDPPC (Fertilizer Distribution & Pesticides Producing Company)가 독점하고 있으며 상무성 및 농업성의 사전허가를 득하여 수입하고 있다. 대미 관계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주원산지이기 때문에 미국산 수입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다만 이란과의 외교 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있는 일부국가, 즉 이스라엘, 이집트, 남아연방 공화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비료의 종류나 구매물량의 결정에 있어서는 이란의 국내수급 상황에 따라 신축성 있게 정책적으로 조정운영하고 있다.

7. 수출 증진 대책

이란 시장의 특징이 가격 시장이라는 것을 기히 언급한 바 있지만 특히 비료의 경우 가격 경쟁력이 결정적이다. 현재 일부 상

사에서는 아국산의 가격 경쟁력 약화때문에 미국산을 수입하여 재 수출하는 형식의 3각 무역을 하고 있으며 문제는 아국 비료 생산상의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주원료를 특히 복합비료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생산해야 하는 입장에 있어 가격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대량 생산에서 오는 생산비 절감으로 계속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아국의 대이란 비료 수출은 혁명후 공백기를 이용하여 대량 수출하여 왔으나 점차 이러한 수출 증대는 향유하기 어려워져 가고 있으며 대이란 비료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 제고밖에는 별다른 묘안이 있을 수 없는 실정이다.

참고로 주재국의 비료 구매 전담 기관인 FDPPC의 관련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식명칭 : Fertilizer Distribution & Pesticides

Producing Company

2) 사 장 : Mr. Mohsen Alavi

3) 주 소 : No 73, Zartosht St., Vali Asr Ave., Tehran

Iran

4) 전 화 : 655667-9 / 654122

5) 텔 렉 스 : 212814 FDC Iran